

우주관 아우르는 철학과 과학

《과학과 철학》 《과학과 불교》 펴낸 김용정 교수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서양의 과학은 인과율(因果律)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기계론적 세계관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서양 과학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대하고 사는 '기상 변화'는 선형적(線形的)인 인과율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소림자와 같은 미시적인 원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혼돈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주장한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설명된다. 20세기의 새로운 과학이론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바로 불생불멸의 동양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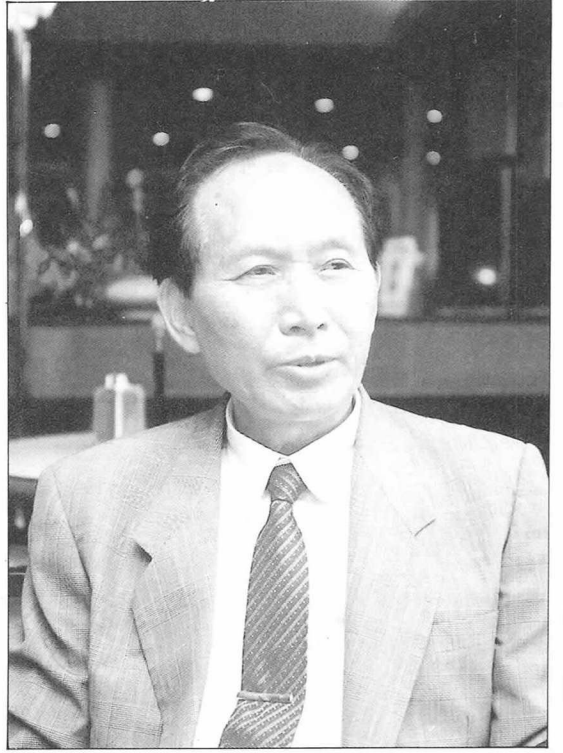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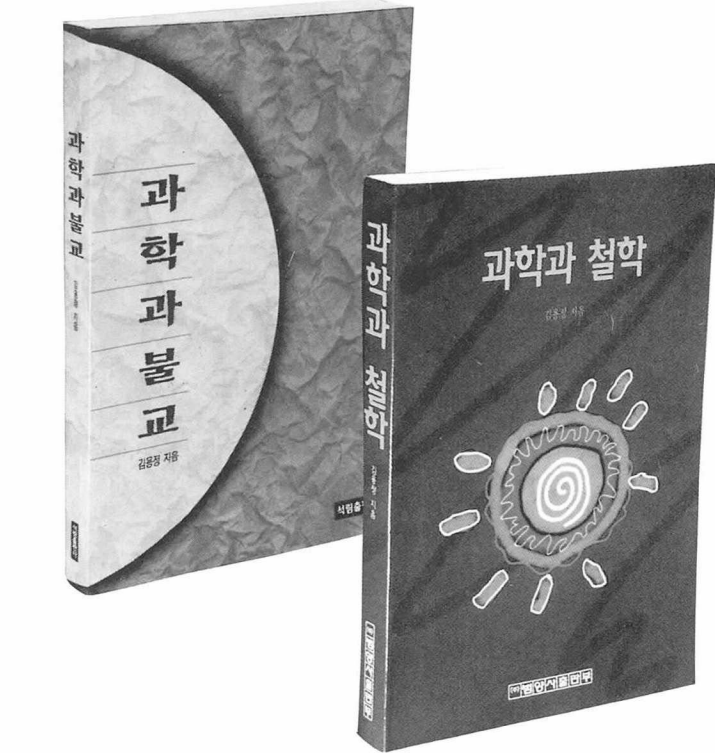
서구적 사고의 한계

김용정 교수(65, 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전 동국대교수)은 이 분야의 연구성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73년 《과학과 불교》(동국대 역경원)의 저술을 시작으로 이 길에 들어선 김교수는 최근 정년을 맞아 두권의 저서를 펴냈다. 《과학과 철학》(범양사출판부)과 73년 출간된 책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논문을 추가해 분량이 곱절로 늘어난 《과학과 불교》(석림출판사)가 그것.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는 상대성원리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물리학의 선구자이자 상보성(相補性)원리의 발견자인 닐스 보어의 ‘서양의 인식론이 붓다와 노자가 직면했던 인식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나는 동양인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과학과 철학》은 바로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환경과괴, 방대한 정보공해 등 과학혁명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 서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서양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고 동양에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 인류가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은 사람도 생물의 하나이며 자연의 일원이라는 동양적인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사라



김용정 교수.

지고 지렁이가 사라지면 언젠가 인간도 사라진다는 ‘공생의 의미’를 알게된 것입니다.”

이 책은 사이버네틱스, 전략이론, 인지과학, 멀티미디어, 시스템 이론 등 수많은 정보과학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발전속도에 비해 철학이 빈곤한’ 현실을 질타하면서 현대과학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과 반성을 함께 담고 있다. 철학이 과학을 분석하고 종합해 현시기의 비판적인 정신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명료한 메시지와 더불어 새로운 윤리와 가치가 요청되는 지금, 철학이 전(前) 과학과 후(後)과학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형적 메시지들

《과학과 불교》는 동양철학의 일부이면서도 우주관과 인생관이라는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불교의 이론과 과학이 이루는 조화를 고찰하고 있다.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유기체와 무기체, 의식과 무의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현대 과학의 변화가 곧 불교의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연기(緣起)와 공(空)사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는 상대성원리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 유기체와 무기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현대과학의 변화는 곧 불교의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연기(緣起)와 공(空) 사상과 일치하고 있지요.”

“불교의 교리는 현대과학이 밝혀내려고 하는 우주론이나 물질관과 매우 유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실’입니다.”

김용정 교수가 저술한 두 권의 저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은 다분히 선형적이다. 과학자들이 추구한 세계가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과학이 철학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과괴, 정보화를 통한 우민화(愚民化) 등 인간과 자

연을 분리해서 생겨난 폐해들을 극복하는 철학적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서(四書)를 읽으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동양의 사상을 익히고, 동경유학 가서 물리학을 배운 집안 어른이 들려주는 현대과학 이야기에 심취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낭만주의자’라고 부르는 저자는 클래식 매니아답게 요즈음엔 과학시대의 예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허연 기자